

### 제12대 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은?

## “도덕성 검증 필요”

제12대 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전주시의회 소속 다수 의원 등에 따르면 자천타천으로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현재 3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이번 의장 선거 출마 지역구는 현 이기동 의장이 전주갑 지역구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의장 후보가 나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정치적 관행에 따라 전주을과 전주병에서 각각 출마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 최명철·이병하·남관우 의원 등 현재 3여명으로 압축

전주을 지역구의 경우 4선의 최명철(68) 의원이 단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주병 지역구는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드러내 온 재선의 이병하(74) 부의장과 4선의 남관우(66) 의원이 의장 후보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아직 후보자를 압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역대 의장 선거와 같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이 사실상 차기 의장의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전주병 지역구 소속 의원들은 의장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모임을 오는 11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새로 선출될 의장이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회를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도덕적이고 있으나 아직 후보자를 압축하지 못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의원은 “후보 검증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는 출마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외적으로 원만하

고 도덕적 결함이 없는 사람이 의장 후보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의원은 “정치 생활 기간은 물론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 빚어진 각종 도덕적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본인은 물론 의회 전체가 오명을 뒤집어 쓴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출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스스로 의장직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본인과 의회,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내달 1일 하반기 의장단(의장·부의장), 같은달 3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은 각각 선거일 공고 후 선거 전날 오후 6시까지다. /뉴스

###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개최

####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10일 '2024년도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군산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정례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보다 1218억1,300만원(7.41%)이 증액된 1조7,663억1,500만원으로, 오는 14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환경보 의원, 김영자 의원, 김영란 의원, 설경민 의원, 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의장 최홍오)가 10일 제261회 제1

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현 의원)을 비롯한 조례안, 본예산 대비 826억원이 증액된 1조8,30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25개 안건을 심의하며 현장방문,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순덕 의원은 춘포면 근대역사유산과 춘포근린공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현 의원은 소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김충영 의원은 익산시 방역활동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임선 의원은 반복짜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신용 의원은 가번차로 노상주차장 확대 도입에 관해 건의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태양)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건을 심의하고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이 노인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 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첨단 의료기기·즐거세포 치료제 선도기업과 협약

김인태 전주부시장, 허전 익산부시장, 윤여봉 전북경진위원장, 이세철 오에스아이메드 대표, 임영경 라파라드(주) 대표, 주경민 메디노 대표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첨단 의료기기과 즐거세포 치료제 선도기업 투자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 “내장산·구천동 관광특구 유명무실”

### 윤정훈 도의원 “특구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홍보 부족… 전북자치도가 대응해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지난 7일 제410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관광특구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에 소극적이었으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고, 전북자치도에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두 곳이 1997



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및 지역 내부자료에 따르면, 도내 관광특구 두 곳 모두 최근 10년 동안 관광특구 지정기준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정훈 의원은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실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에 관해 질의했다.

## 공유재산 사용자 납부 부담 완화

### 염영선 도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10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그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

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 평정에 있어 '초지법'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 유치지원특위 활동 마무리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식, 이하 위원회)가 지난 7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2022년 11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의 전문적인 검토·연구와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주력, 4차례에 이르는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 등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회계연도 결산심사

## “이월사업 최소화·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 행자위, 자치행정국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정책결의에서 정중복 의원(전주3)은 새만금 갯배리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70%에 미치는 점을 들며, 행사 추진의 노고는 격려하지만 과한 계획이 있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하였는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기존에 명시이월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관련 또다시 재이월 되었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 금고 약정시에 정기 예금 금리 상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 또한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 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지역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불용액 예상된다면 추경 등을 활용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이 84억임을 들며, 지급되는 보조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며, 현실·구조적 원인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정산 등의 문제가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매해 오차가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 추계에 대한 이유를 묻고, 추계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정확한 추계에 힘써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입을 바탕으로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향후 예산 집행, 계획에 맞춰야”

### 환복위, 환경복지국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6월 10일 제410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복지여성보건의료, 환경복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위원회 소관 국·원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에는 어려운 도 재정 여건하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운영사항 등을 질의하며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예산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어린이친화체 협관 체험시설 운영 장비 구입 사업

관련 사고이월 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철저히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재난거점병원 운영 사업은 행정절차 소요 및 일 정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했다며, 현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에 철저히 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훈 의원(무주)은 무주군 매립 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본예산 대비 잔액 삭감된 사유 및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 2)은 수소연료전지차 시범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별로 수소차 구매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여 구매 수요가 높은 지역에 예산을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사업계획단계부터 낭비되는 예산 최소화할”

### 농산경위, 기업유치지원실·농생명축산식품국 등 대상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기업유치지원실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잘 다독여 일상 업무 및 다가오는 한 상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결산서 상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라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전 예산 검토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판단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권오안 의원(완주2)은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비 실적은 85.4%로 목표량에 미달했는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는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지역 투자촉

진사업의 국비 미승금 건과 관련하여 결산서 상 명시이월 사유에 자급 없는 이월이라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며 “향후 도민들도 결산서를 살펴봤을 때 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주 의원(군산2)은 “지역투자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미승금 및 투자기업 정산지연으로 명시 이월 하였는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인원 미승원에 따라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하여 불용액 및 반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7월부터 조직 개편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팀과 인원이 축소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추세에 있다.”라며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